

'환호' 대신 '한숨'만 가득한 시장

8 September 2017

02.788.7178 fno@hyundaifutures.com

● 전일 주요 시장 동향

✓**中 증시, 하락.** 부동산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은행주와 차익 실현 매물에 시달린 자원주의 약세가 주요 지수들을 끌어내림. 한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의 저우광 애널리스트는 "성장주들이 견실한 반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며 "증시가 좀 더 균형 잡힌 속도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 저우 애널리스트는 경제 성장세가 연말까지 공고할 것이라는 전망도 증시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힘. CSI300지수는 0.5% 내린 3,830.58에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0.6% 하락한 3,366.43에 마감.

상해종합지수 -0.6%

✓**美 증시, 혼조.** 전일 미 증시는 월트 디즈니와 컴캐스트 등의 부정적인 기업 업데이트에 미디어주가 급락했지만, 헬스케어주의 강세가 완만한 막판 랠리를 이끌며 보험권에서 혼조장세로 마감. 한편, 허리케인 '어마(Irma)'는 빠르면 이번주 미국 본토에 상륙할 것으로 관측되며 투심 위축시킴. 카리브해 일대에 막대한 피해를 낸 어마는 도미니카 공화국을 통과해 아이티를 향하고 있음. 어마가 플로리다주를 향하면서 주요 보험사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 다우존스 미국 보험업종지수는 1.88% 밀림.

다우 -0.10%, S&P500 -0.02%, 나스닥 +0.07%

✓**美 달러, 하락.** 전일 유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채권매입부양책의 점진적 축소(테이퍼링)에 관한 결정을 10월에 내리게 될 것 같다는 신호를 보낸 뒤 달러대비 크게 상승. 달러는 이날 엔화에도 하락.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ECB가 사상 유례가 없는 경기부양 프로그램의 단계적 철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ECB는 유로 강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약화를 고려해야만 한다고 언급. 드라기의 기자회견에 앞서 ECB는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에서 동결하면서 자산매입프로그램은 최소한 12월까지 지속될 것임을 확인.

유로/달러 1.1917→1.2023 +0.9%, 달러/엔 109.22→108.45 +0.7%

✓**유가, 혼조.** 전일 유가는 허리케인 하비로 가동이 중단됐던 걸프만 연안의 정유시설들이 점차 정상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가를 지지한 가운데 하비를 능가하는 강력한 허리케인 '어마(Irma)'가 카리브해를 거쳐 플로리다로 움직이며 시장의 관심 집중. 또 지난 주 미 원유재고는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이며 9주간 이어가던 감소세를 접어 WTI에 부담. 반면 정유시설 가동률이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으로 17%P나 급락, 움직임은 보험권에서 제한되는 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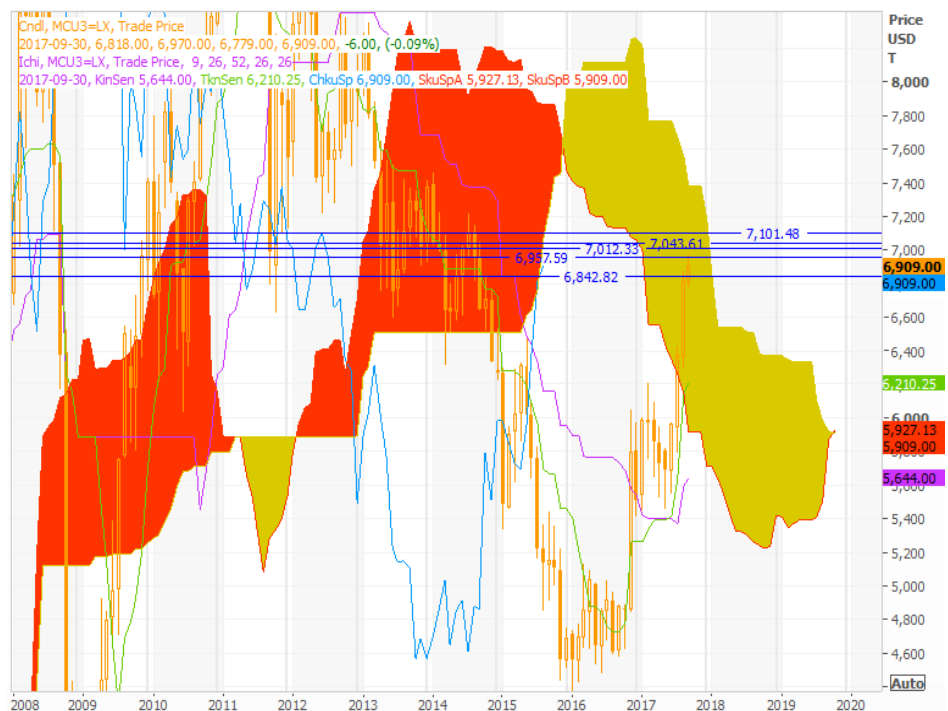
WTI -0.14% \$49.09, 브렌트유 +0.54% \$54.49.

‘환호’ 대신 ‘한숨’만 가득한 시장.

흐름이 달라졌다. 가격은 여전히 상승추세 안에 머물고 있지만, 움직임만큼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참 신나게 질주하던 그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점점 힘이 빠지는 느낌이다.

단순히 속도 조절일 수는 있지만, 지금 가격 수준을 고려할 때 속도조절 보다는 추세전환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려했던 가파른 방향전환은 아니지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일 LME 전기동 가격은 전일대비 0.12% 상승한 \$6915에 마감. 아연을 제외한 대부분 비철들도 하락 마감.

그림 1. 월간 일목균형표로 본 LME 전기동 가격



출처: 로이터, 현대선물

위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전기동은 참 가파른 상승을 했다. 월간 일목균형표로 볼 때 올 상반기 전기동 흐름과 지난 7~8월 전기동 흐름을 단편적으로 놓고 비교하더라도 이는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사실 현 수급만 놓고 보면 전기동 가격이 \$7000선을 찍은 것도 놀랍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수급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중국 구리 현물 프리미엄은 낮은 수준에서 크게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그림 2). 물론, 거래소 재고가 꾸준히 감소하며 수요에 대한 기대를 지속시켜 주고 있지만, 재고반출이 실수요로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보세창고나 등록되지 않은 창고로 옮겨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환호’ 대신 ‘한숨’만 가득한 시장. 확실한건 지금의 상승이 수급보다는 투기가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시장에 한숨만 가득하다. 가격이 \$5000 후반에 \$6000선을 향해 갈 때, 시장은 중국에 대한 장미 빛 전망이 반짝 가격을 올릴 것으로 간주했다.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는 매도에 나섰다. 하지만, 가격은 계속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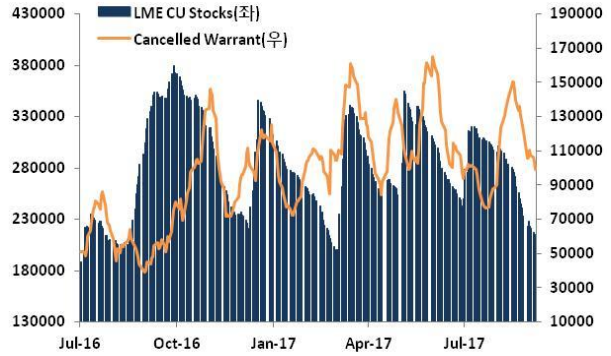
가격이 \$6000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향할 때도 시장은 너무 올랐다고 보았다. 수급만 볼 때 지금은 매수보다 매도 타이밍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자꾸 오르는 가격에 과감하게 매도에 나서지 못하고, 가격이 매도쪽으로 방향을 틀기를 기다리며 상황만 파악했다. 하지만, 가격은 멈춤 없이 계속 상승했고, 장중 \$700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때문에 시장은 가격 상승에도 환호대신 한숨만 쉬고 있다. 추세만 놓고 보면, 가격이 더 오를 거 같지만 수급까지 고려하면 지금은 매도를 해야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의 상승을 이끈 투기적 세력이 언제 짐을 싸고 떠나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도 쉽게 매수도 나서지 못한다. 그렇다고 매도에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동안 가격은 점점 오르고 있다. 그리고 시장은 '자포자기(自暴自棄)' 상태에 빠져 있다.

그림 2. 중국 CIF 전기동 현물 프리미엄 추이



출처: 로이터, 현대선물

그림 3. 월간 일목균형표로 본 LME 전기동 가격



출처: 로이터, 현대선물

금, 상승

전일 금은 달러 하락에 영향받아 1년 최고 수준까지 상승. 미국의 지난주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텍사스지역에서의 신청이 급증하면서 2년여래 최고를 기록. 부진한 실업수당 데이터 발표로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지수는 2015년 1월 이후 최저인 91.405까지 후퇴. 한 시장 전문가는 "약화된 미국의 경제 데이터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췄다"면서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고용시장 약화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더 나쁜 상황이 앞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게 사실이다"라고 설명. 또한, 북한의 핵실험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지정학적 긴장은 안전자산인 금을 추가 지지. 미쓰비시의 상품 분석가는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긴장은 계속 높은 수준이며 때문에 나는 이 같은 긴장이 단기적으로, 그리고 내주에 금을 상당히 잘 지지해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금 현물은 장중 온스당 1349.49달러까지 전진, 2016년 9월 이후 고점 찍음. 금은 이후 상승폭을 약간 줄여 뉴욕거래 후반 1.1% 오른 1348.26달러에 거래. 금은 전일에는 0.3% 하락.

● 품목별 주요 뉴스

✓ 전기동

Kuczynski Says Southern Copper to Build \$1b Copper Smelter in Peru Port Town

Russia's Jan-July Copper Exports 316.6K mt, Up 7.5% YoY

LME 'Substantially' Cuts Short, Medium-Dated Carry Fees Effective Q4

U.S. Jobless Claims Soar by Most Since 2012 on Hurricane Harvey

Stanley Fischer's Surprise Exit Will Leave Federal Reserve With a Big Problem

Fed's Mester Says Basic Income Unlikely, But Something to Mull

CLIs Continue To Point To Stable Growth Momentum In The OECD Area

✓ 알루미늄

Rio Tinto Alcan to Sell Icelandic Aluminum Smelter

Chinalco Vows to Strictly Implement Winter Aluminum Capacity Cut

Russia's Jan-July Aluminium Exports 1.71M mt, Down 16% YoY

Japan Aluminum Premium Falls On Lower Deal At \$75/mt CIF Japan

✓ 니켈/주석

Cuba Shuts Down Nickel Industry As Hurricane Irma Approaches

Russia's Jan-July Nickel Exports 81.7K mt, Down 28.8% YoY

✓ 납/아연

Zinc Ingots Departing New Orleans For Asia To Capture Arbitrage Profit

DATA

● LME PRICE(3M)

LME	시가	고가	저기	증가	Change(\$)	%	월 누적평균(Cash)
전기동	6,925.0	6,929.0	6,836.0	6,915.0	-8.0	-0.12%	6,478.2
알루미늄	2,110.0	2,119.0	2,088.0	2,114.0	-1.0	-0.05%	2,030.1
아연	3,106.0	3,145.0	3,073.0	3,134.0	28.5	0.91%	2,981.8
납	2,346.0	2,365.0	2,316.0	2,347.5	-5.0	-0.21%	2,357.3
주석	20,765.0	20,785.0	20,680.0	20,755.0	-30.0	-0.14%	20,570.0
니켈	12,205.0	12,320.0	12,005.0	12,185.0	-65.0	-0.53%	10,853.0

● LME STOCKS

LME	금일재고	Change (+/-)	Change(t)	On Warrant	Cancelled	In	Out
전기동	210,725	DOWN	4,050	111,550	99,175	500	4,550
알루미늄	1,321,375	DOWN	3,175	1,152,900	168,475	1,475	4,650
아연	242,675	DOWN	575	112,475	130,200	0	575
납	164,450	DOWN	175	102,950	61,500	0	175
주석	1,940	UP	30	1,705	235	30	0
니켈	384,150	UP	780	238,464	145,686	3,468	2,688

● PRECIOUS METAL PRICE

Prec. Metals	LBMA Fixing		SPOT		COMEX Prec. Metal	
	AM	PM	Last(Spot)	Net Chg.	LAST	Net Chg.
GOLD	1340.45	1343.5	1349.75	0.84	1350.3	11.30
SILVER			18.15	0.037	18.116	0.206
PLATINUM	1005	1007	1022.1	2.3	1018.3	9.70
PALLADIUM	942	945	962.52	1.97	948.85	16.95

전기동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알루미늄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아연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납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니켈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주석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할 고객의 투자사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